

보도설명자료 (’20. 4. 14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지열발전부지의 안정적 복구를 위한 모니터링 사업을
안전성 검토 TF와 함께 추진중이며, 이를 위하여 지진
관측설비의 설치 및 부지사용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음
(한국일보 4.1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◇ 지열발전부지의 복구를 위하여 안정성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중
이며, 지진관측설비 설치를 위해 포항시와 협력하여 지열발전부지
채권단과 계속 협의중

◇ 4월 14일자 한국일보 <포항지진 주범 지열발전부지 매입 논란>
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.

1. 기사내용

- 산자부가 “여진 가능성 조사위해 부지매입 필수”라면서 “예산없다”
포항시에 소유권 확보 떠넘겨…
- 주민들은 원인제공자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
혈세를 들여 사들여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
-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열발전부지내 여진가능성을 조사하기 위
하여 포항지열발전부지를 직접 매입하려고 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
못해서, 포항시에게 동 부지를 매입해줄 것을 요구했다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우리부는 포항시에 부지소유권 확보를 떠넘긴 사실이 없음
- 지열발전부지의 복구를 위한 안정성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중이며,
부지내 지진관측설비 설치를 위해 채권단과 계속 협의중

- ‘20년도에는 확보된 임대예산을 활용하여 부지사용권 확보를
추진중임

* 우리부는 지열발전부지의 매입예산(약47억) 확보도 계속 추진해왔음
- ‘19년 정기국회에서 산중위·예결위를 통과하였으나 본회의 직전 무산
- ‘20.3월에도 추경예산안으로 산중위·예결위를 통과했으나 최종 단계에서 무산

- 포항시에 포항지열발전부지내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설치해야 한다며
부지소유권 확보를 요청한 바 없음

- 우리부와 포항시는 채권단으로부터 부지사용권을 확보하는 여러
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며, 일반적인 임대 또는 매입뿐만 아니라
부지모니터링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한 수용방안도 검토 중임

- 우리부는 지열발전 부지의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중임

- ‘19년도에 이어 포항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으로 지표지진계
및 지반변형측정시스템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,
- 부지 협상 완료 및 해외 기술진 입국이 가능해지면 지진관측설비를
조속히 설치할 예정임

※ 문의: 포항지열발전조사지원단 이은호 단장/황영래 사무관(044-203-5893)